

이하에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A과 동등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공통

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C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능관리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C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원활한 C 사용을 위하여 개발 및 배포된 것으로서, 타인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과는 개발의 목적 및 사용용도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훼손, 멸실 변경, 운용 방해 등의 금지 대상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지 '하드웨어' 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하드웨어인 C은 '정보통신시스템'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성능에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C의 사용자에게 유용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 설치 이후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위 업데이트의 제작·배포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업데이트는 C의 통상적 용법에 따른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것이고,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이 위 업데이트의 구